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사탄의 속임수

[살후 2:9-10] 악한 자의(그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은 불법(죄)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의 근원은 사탄이다. 그는 사탄의 역사(役事)를 따라 올 것이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엡 2:2).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요일 5:19).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 곧 사탄은 짐승 곧 불법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계 13:1-2).

둘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수이다. 그는 우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22-23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마태복음 24:24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요한계시록 13:13, 15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였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는 오늘날 은사주의를 주목하고 그것이 죄의 사람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비한 은사 체험들을 구하지 말고 성경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죄의 사람은 또한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 행할 것이다. 그는 죄악된 일을 담대히 하는 자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도덕성과 양심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는 속이는 일에 능숙할 것이다. 그와의 대화에는 진실이 없고 그와의 약속은 헛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도덕성이 없는 이념과 정치인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도덕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경제적 평등을 위해 먼저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에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선이라고 본다.

셋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구원 얻은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구원 얻은 자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장차 나타날 저 죄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활동할 것이다.

넷째로, 죄의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

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11-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미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저 죄의 사람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실 것이다. 진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곧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이며 성경적 기독교이며 옛신앙이다. 그 개요는 개혁신학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따를 것이다. 거짓 것이란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속화된 기독교,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이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지키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거나 포용하고, 우상숭배적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종교들을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심히 두렵게도, 이것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표를 상실하고 멸망의 표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목사와 성도들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

멸망하는 자들은 또한 불의를 좋아한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간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다. 불신앙, 배교, 자유주의, 신학적 변질과 헤이 등은 불의, 탐욕, 음행, 포용주의, 타협 등 윤리적 부패와 헤이로 나아간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이며 멸망이다. 우리는 오늘 시대의 이런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의 활동들의 근원과 방법과 대상과 이유에 대해 증거한다. 죄의 사람의 활동들은 사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그 방법은 거짓된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며,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격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 기독교회들이 많다. 우리는 역사 깊은 이단인 천주교회, 또 특히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각종 이단종파들, 또 20세기 초부터 퍼져나간 배교적 자유주의 신학, 타협적 복음주의, 혼란한 은사주의 등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않다.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저버리고 있다. 천주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이 포용되고 은사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들은 다 말세의 징조들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거짓된 기독교를 배격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이다. 우리는 바른 교리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또 성경적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정립한 사상 체계인 개혁신학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한다. 바른 믿음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며 또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깨어 있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진리들을 다 믿고 개혁신앙을 지키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참된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다.

주일오후설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해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참 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셨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그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골로새서 1:16, “만물이 그에게[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시며 또 다윗의 뿌리이시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의 인성(人性)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는 처녀 마리아

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고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그는 또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하셨다. 그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악된 인류 역사를 끝마치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셨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오소서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오소서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자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처음에 언급된 ‘오라’는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7, 12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된다. 즉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화답한 것이다. 또한 주의 재림의 약속이나 그에 대한 화답의 말을 듣는 자들도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소서”라고 화답의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8-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라.”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와 그 결과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증거하였다.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됨을 증거하였다(시 1:2; 전 12:13).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셨다(마 1:1).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며 구

약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감치 말라는 강조와 경고가 다시 기록되어 있다. 이 경고는 매우 엄숙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 기록케 하신 이 책의 내용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며, 누구든지 무엇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경고는 이 책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며 이 책이 종말 예언에 있어서 충족한 계시의 책임을 증거한다. 더 이상 이 책에 무엇을 첨가할 내용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와 신구약성경 전체에도 적용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에 대한 증거와 교훈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0-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나히)](전통사본)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였다.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을 나타낸다. 주께서는 참으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참으로 오시기를 소원했다. 요한계시록 1:7,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나히). 아멘”

주께서는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낸다. 베드로후서 3:8-10,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전통본문)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불타버리리라).”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큰 소망이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런 몸으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뿌리이시며 그의 자손이시고 광명한 새벽 별이시다. ‘뿌리’와 ‘자손’이라는 말은 그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가리키며, ‘새벽별’이라는 말은 어두운 우리 마음과 세상을 밝히시는 자이심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둘째로, 주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 곧 그를 진실히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7:37-38,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셋째로, 주 예수께서는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종말 예언들의 절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적 사건이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우리는 66권으로 된 이 책을 기감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기감하는 것은 큰 악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에 있어서도 정확무오한 유일한 규칙이다.

수요일 설교 |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

[이사야 5:8]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선지자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한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이 사는 집을 확장하였고 또 필요 이상으로 밭을 사고 또 샀다. 그것은 집과 땅, 즉 재산에 대한 욕심이었다. 그것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의 행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기적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9-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

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케 하시며 그 수확과 소득을 매우 부족하게 하실 것이다.

[11-17절] 아침에 일찍이[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 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 . .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했고 잔치를 열며 각종 악기를 연주케 했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졌다가 망하였다. 그들은 크고 안락한 집을 지었고 토지를 넓혔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술 취하였고 연회와 음악을 즐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의 집과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들은 전쟁 포로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돈 사랑과 육신적 쾌락 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삶이다(전도서).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이 실패할 것이다. 돈 사랑과 사치와 향락은 성도에게 매우 큰 시험거리이며 경건한 삶에 반대된다. 성도는 돈 사랑과 사치와 향락을 버리고 자족하며 검소하고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잔치에 각종 악기를 갖추었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을 드렸고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행 20:24; 빌 2:20-22, 30).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귀히 여기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과 교회의 봉사의 일들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